

청송 청윤리 마을구조와 민가특성 연구

A Study on the Organization of the Village and the Characteristics of Folk Houses on Cheongunri in Cheong-Song

곽동엽*
Kwak, Dong-Yeob

Abstract

This study i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organization of Cheongunri in Cheong-song,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s of folk houses. In this study, 82 folk houses, including the villages, are surveyed; among them, 15 houses are intensively analyzed in terms of the structure of plane and the arrangement of space. The focus of study is on discovering an internal order system of villages and tracing a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houses and the environmental factor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an intrinsic order in Cheongunri is found to be related to the mountain axis, the road system, and the flow axis; and the form of folk houses is also found to be influenced by this order.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folk hous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Most of the houses face east along the mountain axis, whereas houses influenced by the flow axis tend to face south. (2) The side of houses tend to be open to the outside, showing external directionality. This characteristic seems to be closely related to the direction of the main gate in a house site. (3) The layout of the main quarters and the annex quarters is found to be related to the direction of the main gate in a house site. Especially, the characteristics of courtyard are found to be affected by the annex quarters. From the above results, it can be concluded that villages have an intrinsic order depending on the geographic characteristics of a surrounding natural environment, and folk houses have also changed accordingly.

Keywords : Intrinsic Order, Change of Yeo-Kan House, External Directionality

주요어 : 내재적 질서, 여칸집의 변형, 외부 지향성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주거는 특정시기 일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인간의 사회 문화적 생활상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결과물이다. 따라서 건축된 시기나 지역적 환경에 따라 주거의 형식은 다소 달라질 수 밖에 없다. 특히 기후나 지형, 지세, 산출재료 등 자연·지리적 환경에 민감한 서민주택의 경우가 차이는 다른 건축물보다 더 뚜렷하다.

특히 민가는 현존하는 전통주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 특수성과 관련된 민가연구 또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분야이기도 하다.

지역별 민가의 특성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 조성기의 『태백산간지역의 민가유형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논문집, 15권 1호, 1999.1)가 있다. 이 논문은 안동, 봉화 영풍, 삼척 등 경북북부지역과 강원도 남부지역에 널리 퍼져있는 곁집의 평면형식과 형식별 상관성 및 변천과정을 탐색한 논문으로 이러한 계열의 연구는 주로 영동지역과 경북 북부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 가장 많다.¹⁾ 이와 함께 전남과 경남, 경북 지역

의 민가형식을 비교한 조정식의 『남부지방 남동해안형 주거의 상호비교연구』(대한건축학회논문집, 15권 1호, 1991.1)와 서해 섬지역을 대상으로 한 박선주, 김성우의 『서해도서민가의 평면형식의 지역적 특성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논문집, 16권 1호, 2000.1) 그리고 인천과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한 홍세균과 한지만, 이상해의 『인천 지역 전통주거의 공간구조에 관한 조사연구』(건축역사연구, 4권 1호, 1995.6)와 『경기지역 민가의 배치형식과 외부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7권 9호, 2001.9) 등이 수행되어 각 지역별 민가의 형식과 유형별 분류 그리고 건축적 특성을 규명하는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냈다.

그러나 이런 연구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지역별 대표적인 평면유형을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나 가옥의 미세한 국지적 지역 차별성을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할 수 있다.

1) 서경태, 삼척지방 민가에 관한 연구(II),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87.12. 김명복, 김일진, 경북지방의 곁집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6권 5호, 1990.10. 이용준, 영동지역 민가의 지역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석사학위논문, 1998.12. 임상규, 삼척지방 동서간 민가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1권 11호 2005.11. 등이 있다.

*정회원(주저자, 교신저자), 대전대 건축공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따라서 만약 민가의 형성, 변화, 발전, 소멸 등의 요인을 지역적 특수성과의 관계에서 찾을 경우 연구대상지는 반드시 동일한 환경조건을 갖춘 지역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환경과의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하고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일한 환경 조건을 갖춘 가장 작은 지역을 채택할 경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하나의 마을이 최소 단위가 될 수 있다.

마을은 비, 바람, 강수량 등 기후는 물론 주변의 산세, 지형, 길, 강 등 지리적인 환경도 역시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풍수형국과 동구(洞口)의 위치, 길의 순환체계 등 지리적 환경 등이 동일한 하나의 마을에서는 그에 따른 대문의 위치와 접근방식, 실의 사용행태와 주거내 동선 등이 동일한 패턴을 보이며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보인다. 이러한 차별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을의 고유한 건축적 특수성이 되고 인근지역과 다른 중간적 절충적인 형식으로 고착화된다.

최근 연구된 최장순의 『왕곡마을의 구조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논문집, 21권 7호, 2005.7)와 최장순, 조현길의 『왕곡마을 민가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한국주거학회논문집, 18권 5호, 2007.10)는 하나의 마을을 단위로 마을의 성립과정, 성씨별 분포 등과 함께 물리적 공간구조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민가의 특성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이와 같이 마을을 단위로 한 연구가 축적될수록 주거 유형의 분류가 세밀해지는 한편 이를 통해 각 지역별 형식의 연관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 주거사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주거의 유형화, 계통화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마을 단위의 주거연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송군 청운리를 대상으로 마을의 지리적 특성과 공간구조를 파악한 다음 이와 연관 지어 민가의 형식을 해석해 보기로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민가의 형식과 지역적 환경과는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청송군 청운리는 행정구역상 청운, 일두, 수구너미 등 3개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두 마을은 본 연구의 지역적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일두는 주민 대부분이 거주하는 청운동으로부터 약 1km 떨어져 위치한 곳이어서 본 연구가 의도한 동일한 환경에 속한 지역이라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연구 대상지로 청운리를 선택한 것은 이 마을이 평해 황씨 집성촌으로 성촌되어 온 과정이 비교적 정확하고 자세하게 전해지고 있으며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당과 정자 등의 유구들이 곳곳에 남아 있어 마을의 역사성이 검증될 수 있었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마을 내에 예전의 법식으로 지어진 전통 민가가

다수 분포되어 있어 마을 구조와 관련하여 민가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였기 때문이다.

청운과 수구너미를 대상으로 마을의 공간구조를 분석하였다. 우선 안산과 주산의 위치, 마을의 축과 좌향, 내(川)의 흐름, 도로와 골목의 구성체계 등 내부 질서와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한 다음 이에 따른 개별 주거의 배치 및 평면 형식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마을 내 192개 주거 중 현대식 건축 재료 등을 사용하여 신축된 주택을 제외한 82개의 주거를 선정하고 건물의 배치와 좌향 등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 중 건립 당시의 평면 형식을 잘 유지하고 있거나 개조된 부분이 적어 원래의 형식으로 유추가 가능한 주택 15개소는 평면과 주거내 동선관계, 실 배열, 공간구성상의 특징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이 마을 주거의 형식적 특성으로 유형화 시켰다.

연구를 위해 마을 전체 배치도를 실측·작도하였고 대지와 집의 방위, 본채와 부속채와의 관계, 진입구 방향 등에 주목하면서 단위 주거의 배치와 평면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마을 주민들의 면담을 통해 마을과 주거의 공간 이용 행태와 주생활의 양상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의 주된 초점이 배치와 평면을 분석하여 이를 유형화하는데 있기 때문에 주택의 결구 방식과 건축 재료 등 구조적인 특성은 내용에서 제외하였다.

II. 청운리의 지리적 현황과 역사

청운리는 현재 189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평해 황씨 동성마을로 청송군청 소재지에서 포항방면으로 난 31번 국도를 따라 약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의 서쪽으로 경사가 가파른 뒷산이 위치하고 반대편 동쪽으로는 성황산이 자리한 반면 남과 북으로는 개활된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 31번 국도가 남북방향으로 지나가면서 마을을 관통하고 있다. 또한 마을의 초입에서 주왕산 방향으로 분기된 도로와 이와 평행하게 흐르는 용전천이 만곡을 이루며 마을 앞을 감싸 돌고 있다.

원래 청운리는 조선초 교통의 중심지로서 역이 설치된 지역이다. 당시 가평 이씨와 예천 임씨, 안동 임씨 등이 터전을 이뤄 살던 이 곳에 황씨들이 처음 입향하게 된 것은 1573년으로 평해 황씨 14세손 덕필(1510-?)과 덕진(1517-1581) 형제에 의해서이다. 두 형제는 당시 임진왜란을 피해 의성 문흥리에서 이곳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²⁾ 그의 후손들은 18-19세기 경에 마을 내 입지를 굳히고 확고한 세력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생각된다.³⁾ 마을 곳곳에 황씨의 22세손인 황학(1758-1804)과 관련된

2) 청송군, 청송입향지, 1995

3) 1913년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토지 조사부에 의하면 당시 평해 황씨가 청운리 전체인구의 약 64%이며, 이들이 마을 토지 중 41%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 외 황씨 관련 유구들이 19세기 이후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건립되거나 이진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를 짐작 할 수 있다. 1959년에 들어서는 사라호 태풍으로 인해 마을의 저지대가 침수되어 많은 수의 가옥들이 도괴되었고 다음 해에 대부분 재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III. 마을의 공간구성과 내재적질서 체계 분석

청운리의 공간구성과 내재적질서 체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표면적인 요인으로 마을의 뒷산, 성황산과 용전천 그리고 31번 국도와 주왕산 진입도로 등 5가지를 들 수 있다. 이들에 의해 마을의 형상, 마을의 축과 방위, 마을길의 체계, 위계적 질서 등이 결정되고 있다.

1. 마을의 형상

마을은 서쪽의 뒷산과 동쪽 성황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두 산은 풍수적으로 볼 때 각각 주산과 안산 역할을 하는데 마을 앞을 흐르는 용전천을 함께 고려해 보면 배산임수의 입지형국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쪽과 북쪽으로는 마을을 위요하거나 외부와 경계를 짓는 물리적 환경요소가 없이 개활된 상태여서 전주작과 후현무는 있으나 좌청룡과 우백호는 없는 형상이다. 따라서 마을의 영역이 점차 커지게 될 경우 남북 방향으로의 확장은 매우 용이한 반면 경사가 가파른 뒷산과 마을 앞 용전천으로 인해 동서 방향으로의 확장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또한 마을의 북쪽 초입은 산과 개천이 가까이 인접해 있어 지형이 좁은 반면 남쪽이 비교적 넓게 벌어진 긴 포대자루 모양을 하였고 여기에 31번 국도가 마을 가운데를 관통하게 되어 전체적인 형상이 가운데가 찢어진 부채 모양을 하였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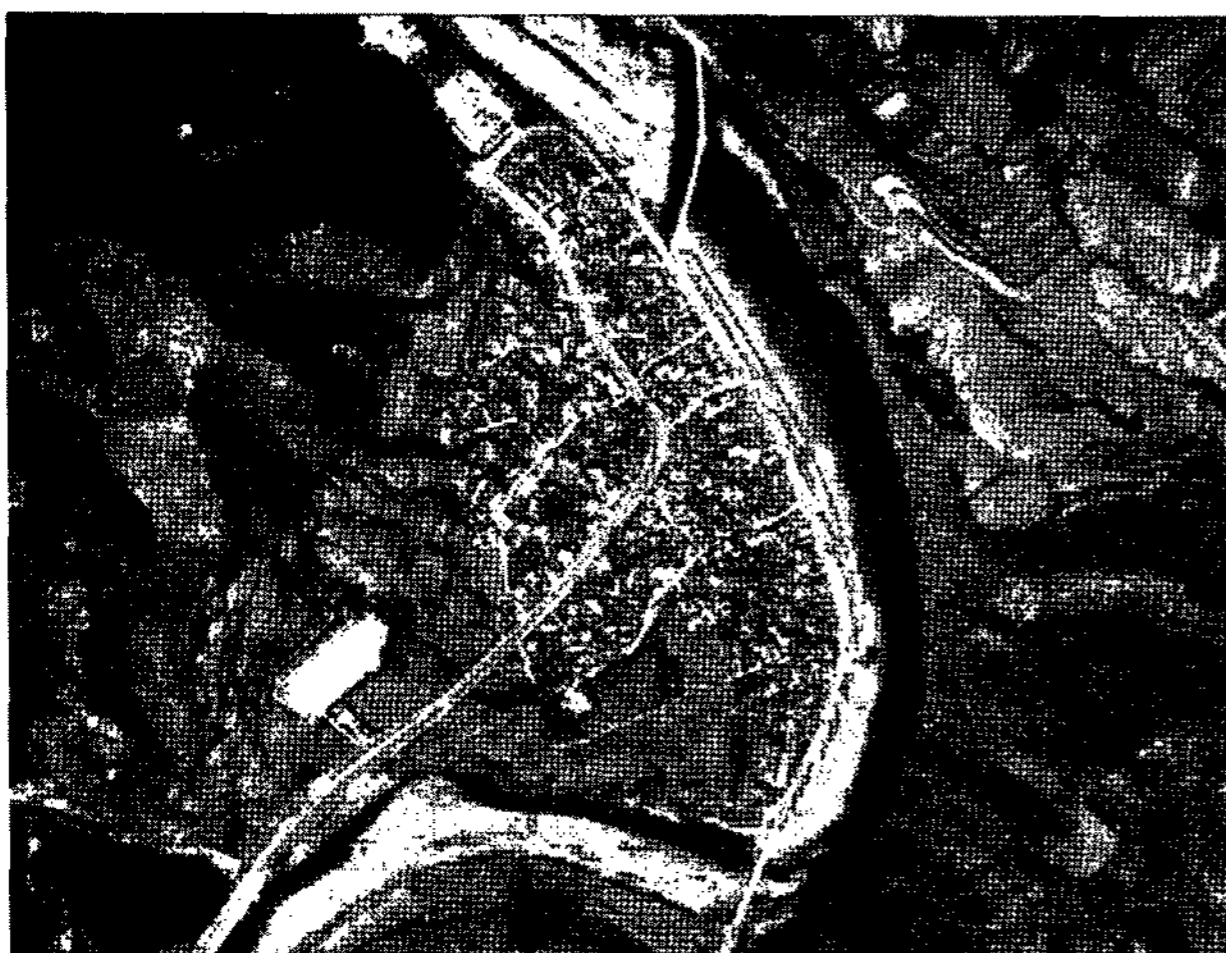


그림 1. 청운리 전경

4) 마을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한데 주민들은 도로가 부채를 반으로 가르는 흉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31번 국도가 뒷산 경사지의 끝자락을 따라가면서 개설된 상태여서 이 도로를 경계로 하여 위쪽의 경사지와 아래쪽 평지로 조성된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2. 마을의 상징물과 방위축

주민들은 마을의 내재적 질서체계와 공간구조를 결정짓는 5가지의 주변 환경요소(산과 물 그리고 도로)에 대하여 커다란 의미를 두고 적극적으로 상징성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는 대개 마을의 경계와 지리적 환경인자들이 교차하는 절절 지점에 마을 구성원의 대표적인 인물과 관련된 정자나 서당 혹은 비각 등을 배치하여 이를 구체화함으로써 나타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보다 확실하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신들이 살아온 마을의 영역적 경계를 표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표 1. 상징물의 마을내 위치와 건립시기

건물명	추모인물	마을내 위치	건립시기
만취서당	황학	주산(뒷산)중턱	1843년
만취정	황학	안산(성황산)중턱	1909년
영이정	황덕필	용전천이 내려 보이는 위치	1739년
파서정	황정필	31번국도와 마을경계	근대
쌍효각	황취근	지방도와 마을경계	미상



그림 2. 마을 상징물의 위치와 축

이와 같은 예를 살필 수 있는 마을의 대표적인 상징물은 만취서당과 만취정이다. 이 정자와 서당은 평해 황씨가문의 배출 인물 중 가장 명망이 있고 널리 알려진 22세손 황학을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건립한 것이다. 이들은 주산과 안산을 직선으로 잇는 축선 상에 정확하게 놓여 주산-안산의 축을 마을의 좌향축으로 결정하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마을은 전체적으로 동향을 지향하면서 어디서나 만취정을 바라다 볼 수 있는 구조가 되었고 만취정과 만취서당은 마을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기능하게 된다. 이와는 달리 영이정과 파서정

그리고 쌍효각은 각 각 용전천과 국도, 지방도로가 마을 내로 진입하는 초입에 자리하였는데 외부에서 마을로 진입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위치이다. 만취정과 만취서당이 마을내부의 내재적 질서체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 영이정과 파서정, 쌍효각은 마을과 외부 영역의 경계를 한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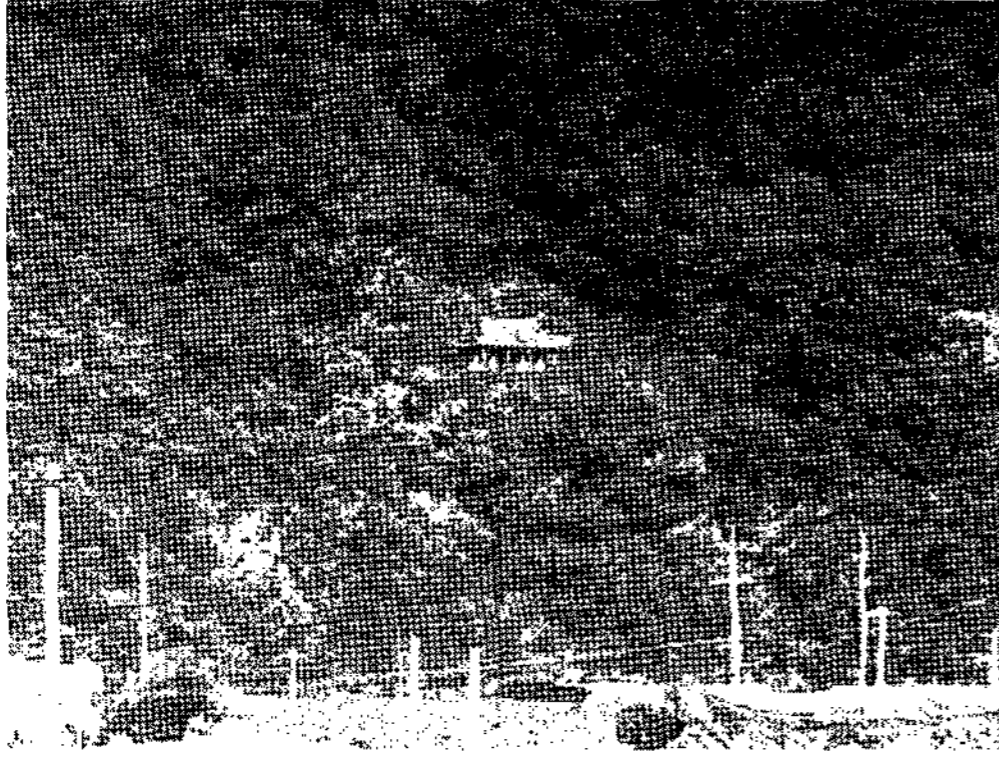


그림 3. 마을 안에서 본 만취정 전경

이러한 각 각의 상징물들은 대부분 평해 황씨 문중의 배출 인물들과 관련된 것들로 특히 이들의 건립 시기나 이권 시기가 모두 18-19세기경인 것을 보면 평해 황씨들이 마을의 주된 세력으로 부상하고 입지를 확고히 하게 된 것이 이 즈음이었음을 짐작하게 된다.

3. 마을의 위계와 발전과정

청운리는 마을의 한 가운데를 31번 국도가 관통하고 있어 표면적으로 서쪽편의 경사 지대와 동쪽의 평지 지역으로 양분되어 있다. 이는 도로가 산지 끝자락을 따라 새로 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결과로 광복을 전후한 시기에 도로가 개설되었다 하므로 현 모습과 같이 동서쪽으로 나누어진 마을의 영역적 질서체계는 대개 20세기 중반에 들어서 정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전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생활의 영역은 이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다. 예로부터 이 마을은 중앙부에 자리한 동서방향의 진골목을 경계로 남쪽 지대의 웃마와 이 반대편 북쪽의 아랫마로 나뉘어 불리고 있다.⁵⁾ 보편적으로 위계적 질서의 의미를 내포하기도 하는 위·아래의 개념이 청운리에서는 남북방향으로 결정된 것이다. 마을 내에 주산과 안산을 잇는 동서방향의 강력한 내재적 축 질서가 이미 존재하고 이와 함께 지형의 고저차 역시 동일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고려할 때 상·하의 위계적 질서가 이와 어긋난 남북 방향으로 맞춰진 것은 매우 의외라 할 수 있다.

5) 웃마와 아랫마는 생활의 일정부분이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실질적인 영역의 경계로 이루어져 있었다. 수년전까지만 해도 정월에 정기적으로 두 마을의 주민들이 편을 나누어 줄당기기를 거행하였고 품앗이의 일종인 상여계가 따로 운영되고 있다.

주민들에 의하면 이는 원래 용전천의 흐름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라 한다. 즉 용전천의 상류에 위치한 곳을 웃마라 하고 하류 쪽은 아랫마가 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처음 마을의 위계를 정할 때 물 흐르는 방향이 우선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황씨 종가 역시 원래는 웃마의 가장 남쪽인 용전천 상류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한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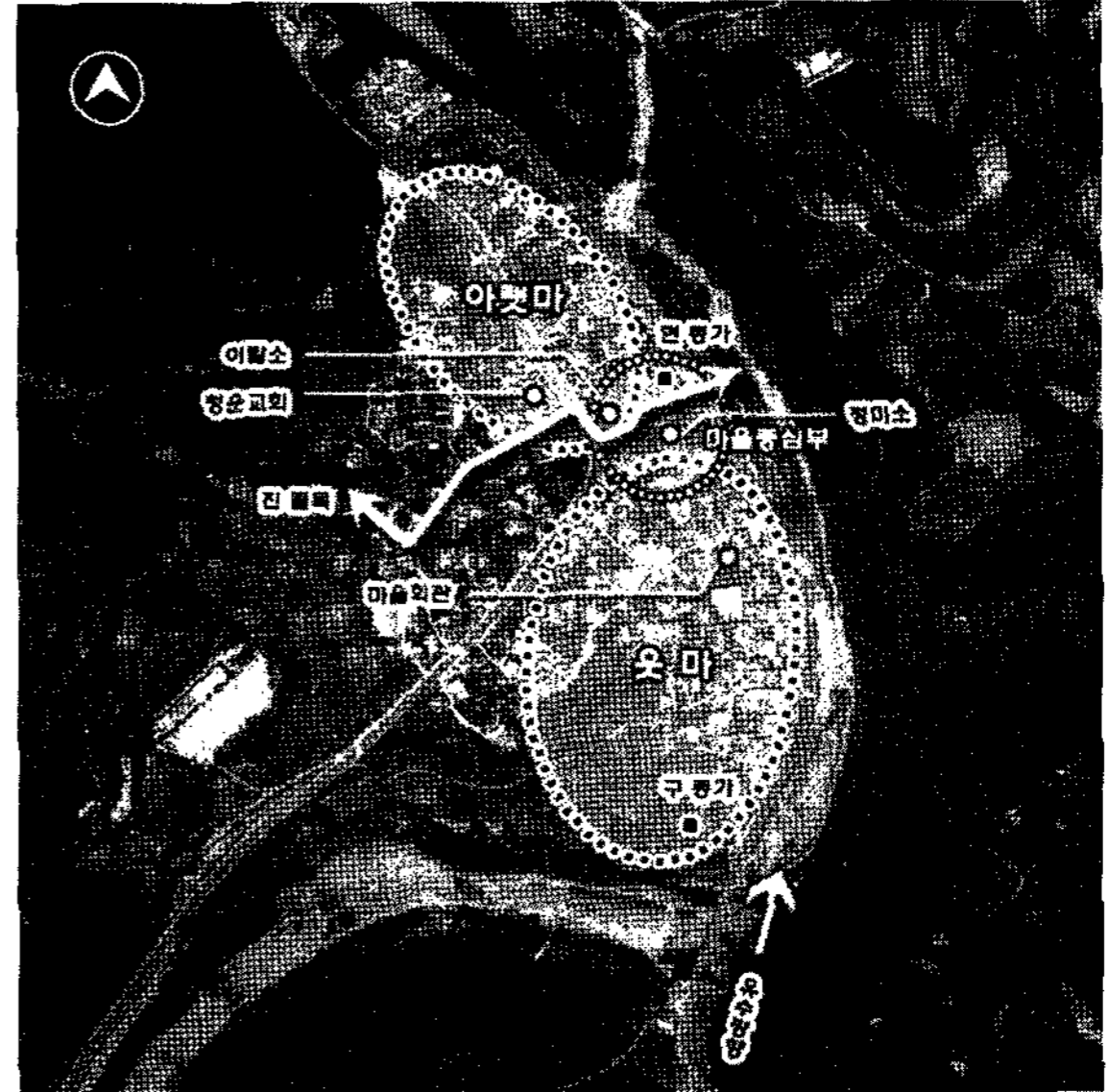


그림 4. 마을 영역 및 중심부

그러나 광복을 전후한 시기에 새로 개설된 31번 국도는 마을길의 체계를 크게 바꾸어 놓았고 실생활의 중심 영역이 마을의 중앙부로 이동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31번 국도와 기존의 진골목이 교차하면서 삼거리가 생기게 되면서 이 주변에는 공용 시설물들이 속 속 들어서게 되었는데 종가 역시 1940년에 삼거리 근처 마을의 중앙부로 이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당시 이 곳을 중심으로 1959년에는 청운교회가 설립되었고 이어서 새마을 사업이 한창일 때는 새마을 회관과 이발소 그리고 정미소가 들어서게 되었다. 특히 당시에는 사라호 태풍으로 멸실되었던 마을내 다수의 주택들이 새로 재축되거나 신축되던 때였으므로 마을의 질서체계가 이 시기를 전후해 크게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생활의 주영역이 마을의 중심부로 옮겨짐으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안산과 주산을 연결하는 동서방향의 산지축이 마을의 질서체계에 큰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부각되게 된 반면 용전천의 흐름에 따른 유수축에 의한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길의 체계 및 대지와와의 관계

길은 서로 다른 지리적 환경을 지닌 두 장소를 연결하는 물리적 요소로 사람들은 연결된 길을 따라 움직여 가

6) 마을주민 황수도(70세)씨 면담내용

며 장소를 지각하고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특정 장소에서 인지되는 장소성은 길과의 연결체계에 따라 서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해당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건축 행위의 유형도 이 둘의 연결패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마을에 위치한 각각의 장소(대지)에 연결되는 길의 체계를 파악하는 것은 해당 마을의 주거양식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청운리의 마을길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마을 중앙부를 통과하는 국도와 이와 나란하게 외곽의 경계부를 지나는 지방도로로서 이 두 길은 각각 차량 교행이 가능한 왕복 2차선의 폭을 지니고 있으며 마을을 외부영역과 연결하는 큰길의 기능을 한다.

둘째는 마을 안길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정도의 폭을 지니고 있으며 큰길에서 분기되어 마을 내 중요한 지점을 서로 연결하거나 순환체계를 이룬다. 특히 안길은 마을 주민들의 친목도모나 공동행사시 이를 위한 공동마당이 되기도 하는데 이 마을 중앙에서 국도와 접속되는 진골목은 안길 중 가장 넓고 버스 정류장이 가까워 실질적인 동구의 역할을 하는 공공성이 강한 외부공간의 성격을 띤다. 셋째는 큰길이나 안길에 접속되어 각 주택들에 접근할 수 있는 셋길로 폭이 좁고 공공성이 약해 위의 세길 중 가장 사적인 특성을 지닌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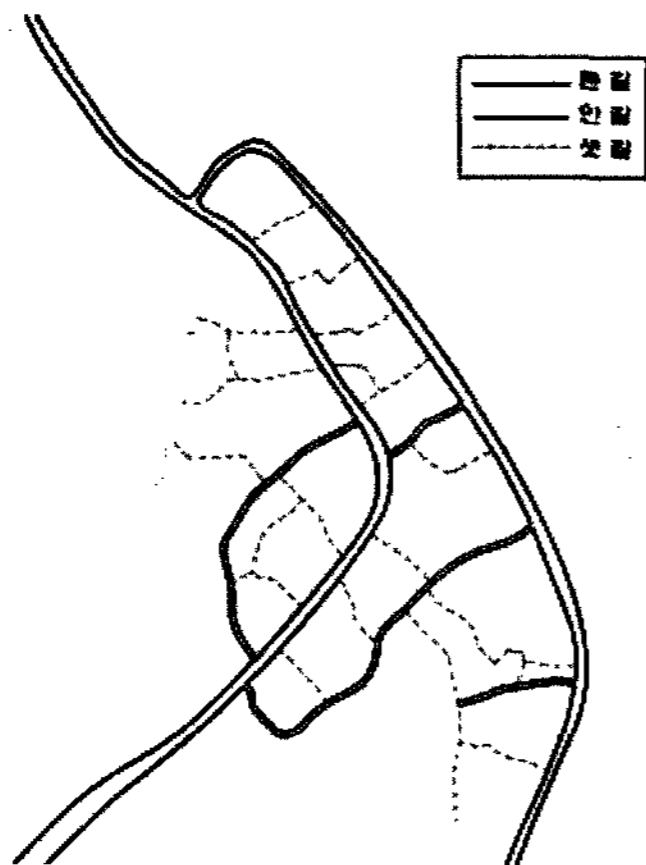


그림 5. 청운리 길의 체계

이 중 큰길은 청운 마을의 구조체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마을 대부분의 영역이 두개의 큰길 사이에 놓이게 되면서 큰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두 길의 사이가 비교적 가까워 각 주택으로 연결되는 셋길은 직접 큰길에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마을 영역이 깊숙하게 형성된 곳에서만 안길이 발달되어 큰길과 접속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이 나란하게 달리는 두 큰길 사이에 안길과 셋길이 일

정한 간격으로 직교 접속되면서 청운 마을의 전체적인 가로망 패턴은 격자형상을 띠는 곳이 많다. 이러한 격자속에 대개 4-5호 정도의 필지가 자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운리에서는 큰길이 남북방향, 안길과 셋길은 동서 방향으로 개설되는 일률적인 경향이 짙기 때문에 대지의 출입구 역시 일정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즉 남북 방향 큰길에 직접 면한 도로변 대지의 경우 동쪽이나 서쪽 방향의 진입구를 가지는 반면 동서방향의 안길이나 셋길에 연결된 대지는 남쪽이나 북쪽이 길에 접하게 되어 이 방향에 출입구가 개설되는 예가 많다. 따라서 큰길과 큰길 사이의 주택들은 대부분 남쪽이나 북쪽 출입구를 가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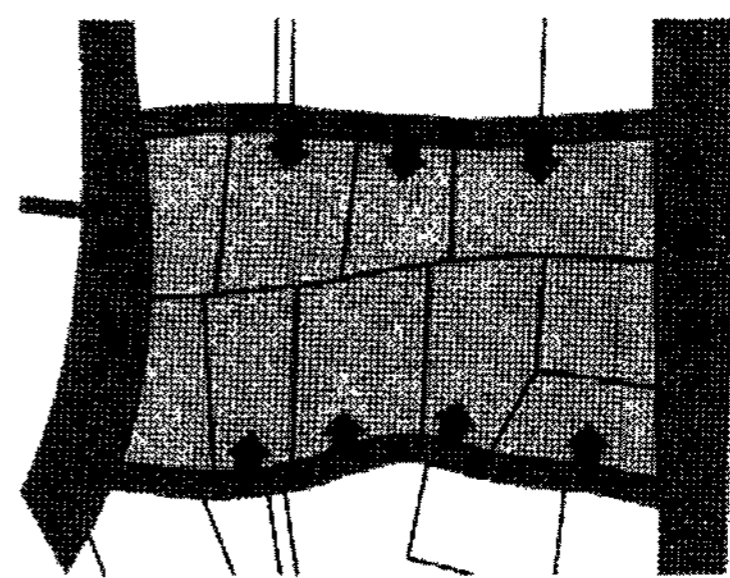


그림 6. 길에서의 대지 접근

대지로의 접근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 해당 대지에 지어지는 주택의 배치와 외부마당의 성격 그리고 평면형태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청운리에서 볼 수 있는 민가의 특수성이 마을길의 구성체계, 그리고 대지에 접속되는 길의 방향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IV. 민가 특성 분석

1. 주택의 좌향 특성

마을의 주택 중 새로 지어졌거나 완전히 개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건립될 당시의 배치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82개소의 주택을 대상으로 본채의 좌향을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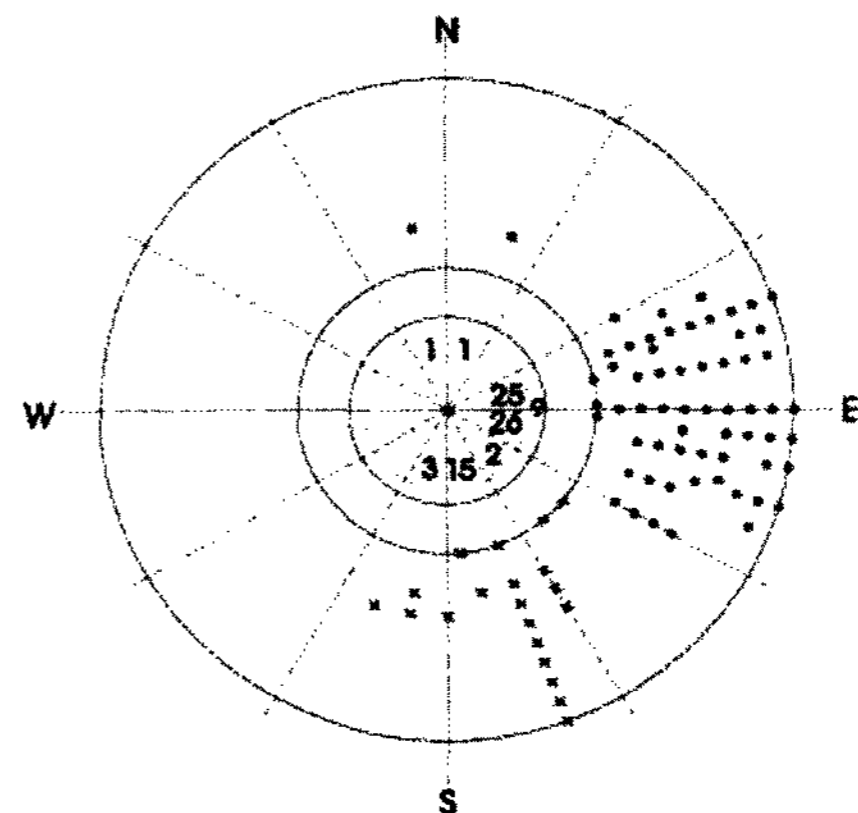


그림 7. 주택의 방위 분포도

7) 큰길, 안길, 셋길의 분류 및 특성은 '양승정, 박용환, 길의 구조로 본 한국 전통마을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1권 7호, (2005. 7), 40쪽'의 내용을 참조하였음

사 분석하였다. 우선 주택의 좌향에 주목한 것은 이 마을의 구조적 질서체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산지축과 도로 및 우수축이 동서와 남북으로 서로 방향을 달리하여 작용하기 때문에 주택의 배치질서에 보다 직접적인 관련 요

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해 보려는 의도에서였다. 다음은 82개소 주택의 향을 방위표에 표시한 그림이다.

그림을 보면 82개소의 주택 중 51개소가 동향을 기준으로 30° 이내의 동남향(26개소)이나 동북향(25개소)의 범위에 들어 가장 수가 많고 정동향 방위의 주택도 9개소에 이른다. 국지적으로 차이가 나는 지형에 따라 주택의 향이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할 때 30°의 범위에 드는 이들 모두는 동쪽 지향의 방위를 따랐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조사된 82개소의 주택중 무려 60개소(73%)가 동향을 지향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매우 주목된다.

다음으로 정남향을 포함하여 남향 기준 30° 범위의 남동향과 남서향 방위를 보여 남향을 지향하는 주택이 20개소(24%)로 두 번째로 많다. 특히 이들 중 남동향 방위의 주택이 17개소로 3개소의 남서향에 비해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남향 대지에서 조차 가능한 동쪽을 지향하며 방향을 정하고자 한 동쪽 선호의도를 미세하게나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표 1. 조사 주택의 배치 및 평면 구성 현황

	배치구성				평면특성		
	배치 및 진입 (→: 대지진입 ▷: 본채출입)	본채 방위 각도	사진	외부공간 (A: 앞마당 B: 뒷마당 C: 안마당)	본채형식 및 구성	규모 (정면*측면) 본채 (부속채)	부속채 용도
김종태		ES° 3			여칸집	3*2.5 2*1	방앗간, 외양간
황서구		EN 10			여칸집	3*3 2*1	방앗간, 외양간
고수성		EN° 2			여칸변형	4*3.5 2*1	방앗간, 방
황학구		ES 50			여칸변형	4*3.5 1*1	방앗간
성천택		EN 15			여칸변형	3.5*4, 5 3*1	대문간, 행랑방
황이명		EN 10			일자집	4*1 3*1	작은방, 외양간
황주백		EN 12			일자집	4*1 1*1	아랫방, 외양간
이종태		EN 10			일자집	4*1	-
황성구		EN 10			일자집	4*1.5 3*1	방, 외양간
황대흠		E° 0			일자집	3*1.5 4*1	방,광, 외양간
황수원		ES 70			일자집	4*1.5 3*1	방, 두지, 창고
김용수		ES° 5			일자집	4*1.5	외양간
황한구		ES° 5			일자집	3*1	-
황정남		EN 10			일자집	5*1	-
윤순남		E° 0			일자집	4*2 3.5*2	방앗간, 창고,방 외양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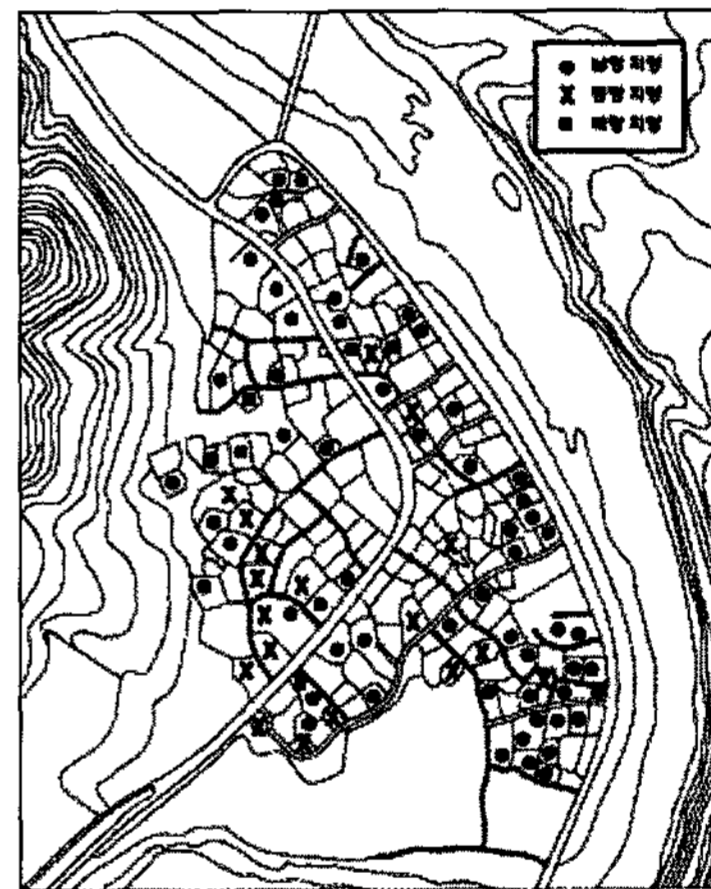


그림 8. 주택 방위별 위치도

따라서 청운마을의 주택에서는 가능한 동쪽으로 지향하고자 한 의도를 엿볼 수 있는데 이는 마을의 구조적 질서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동서방향의 산지축이 주택 좌향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특히 남동향과 남서향의 주택은 마을 중심부에 위치한 2개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마을 남단 경계부에 밀집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마을 중심부에 위치한 김분홍씨와 황학구씨 주택의 경우 막다른 골목의 끝단에 위치하여 대지의 위치적 특수성으로 인해 남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여긴다면 이들의 좌향과 위치적 특수성이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마을 남단은 용전천이 흘러드는 수구부분으로 깎아지른 절벽이 형성되어 있어 하천 상류지역을 막힘없이 한눈에 굽어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며 마을의 중심축에서 다소 벗어난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곳에 위치한 주택들은 동서 방향의 산지축의 영향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고 남북방향

의 우수축에 의해 좌향이 결정된 예외적인 경우로 이해할 수 있다.

2. 여칸집 평면의 변화와 확장 양상

청운 마을에는 5채의 여칸집 계열 민가가 남아있다. 여칸집은 일명 까치구멍집이라 불리며 경북 북부와 강원도 남부의 산간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자영농계층의 주택이다. 원래 마을에 많은 수가 존재하였다고 하나 1959년 사라호 태풍과 새마을 사업의 영향으로 상당수가 멸실된 것으로 보인다.⁸⁾

전형적인 여칸집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사랑방과 안방, 대청 그리고 봉당과 정지 및 외양간 등이 한 칸씩 총 6칸으로 구성되는 특징이 있다.

김종태씨와 황서구씨 주택은 외양간이 따로 떨어져 나가면서 방이 확장된 모습을 보이긴 하나 기본적인 구성은 동일하여 여칸집의 전형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외양간이 생략된 이러한 변화는 사람과 동물이 한 지붕 아래에서 기거하면서 발생하는 위생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초래된 것이며 평면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한 채 공간의 기능만이 바뀐 소극적인 변화로 생각할 수 있다.

반면 나머지 3채의 여칸집 계열 민가는 전형적인 6칸의 구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공간이 확대된 보다 적극적인 차원의 변화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확장의 패턴에는 일관된 규칙성마저 내포되어 있어 타 지역 주택형식과의 연관성을 유추해 볼 수도 있는 귀중한 자료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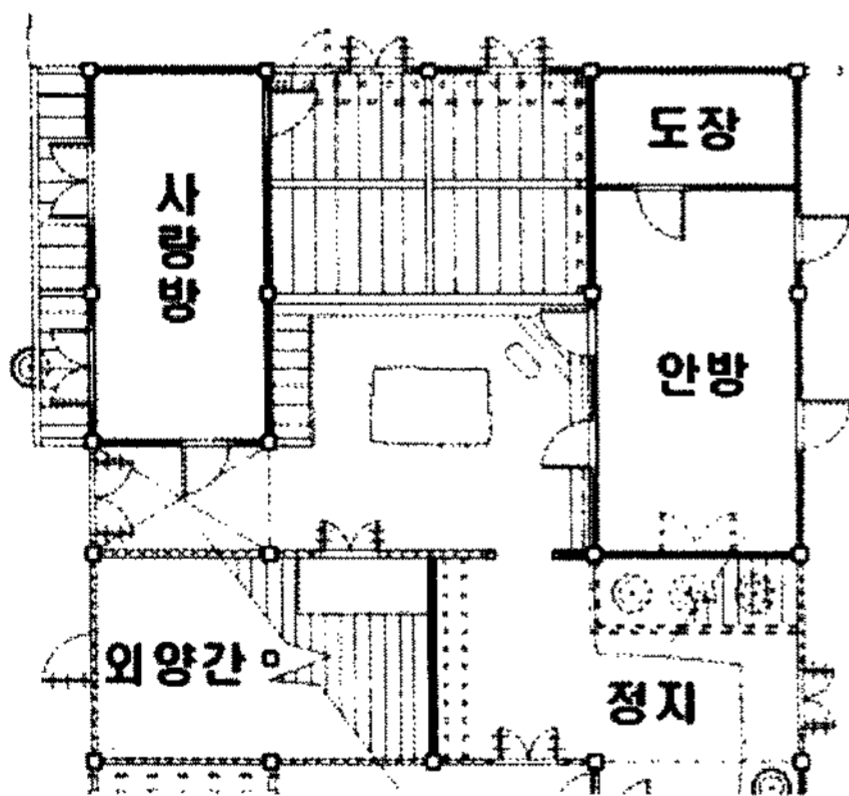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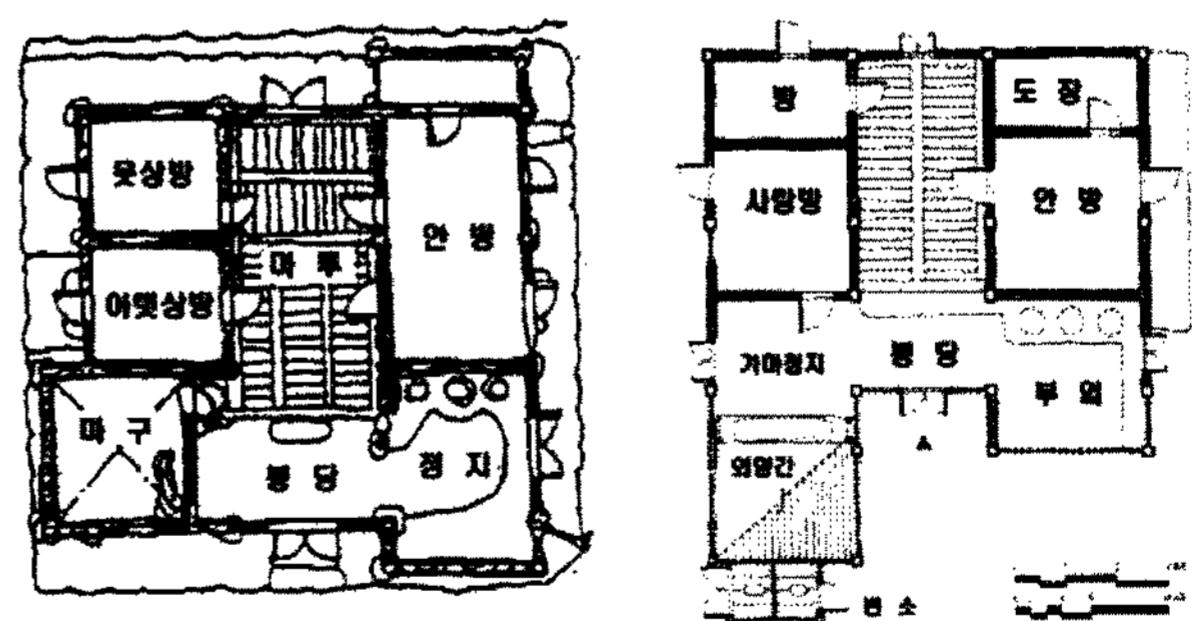


그림 9. 확장된 여칸집 평면 예(고수성씨 주택)

고수성씨 가옥은 정면 4칸, 측면 3.5칸의 크기로 여칸집을 기본으로 정면 1칸, 측면 1.5칸이 확장된 모습을 보여준다. 정면과 측면 양쪽 방향으로 공간이 확대되면서

중앙에는 안뜰(마당)이 형성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사랑방과 안방(도장 포함), 대청, 외양간 등이 2칸 통으로 확장되었을 뿐 내부의 평면 배열은 여칸집의 기본형과 동일하다.⁹⁾ 실 배열 상에서 표면적으로 달라진 점은 측면에서 안쪽의 마당으로 직접 연결되는 반 칸 크기의 측면 출입문이 사랑방과 외양간 사이에 새로 개설된 것이다. 또한 정지와 외양간 사이에 위치한 봉당¹⁰⁾은 주택 내부에 안마당이 따로 형성됨으로 인해 작업마당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출입의 기능만이 남았거나 정지의 부속공간으로 활용되는 양상도 함께 볼 수 있다. 다른 공간들에 비해 유독 정지만 확장되지 않은 것은 봉당을 정지의 부속공간화하여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존 연구에 의하면 이와 같은 여칸집의 확장 유형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전형적인 여칸형을 기본으로 세겹집으로 발전하는 형식과 ㄱ자형의 두렁집¹¹⁾을 기본으로 하여 확장되는 형식 등이 밝혀졌다. 이에 의하면 전형적인 6칸을 기본으로 확장된 형식은 종방향으로 1칸이 증가하여 정면 3칸 측면 3칸의 총 9칸의 세겹집(사방이 모두 3칸씩 같다고 하여 일명 사방집으로 불린다)이 되는 경우로 한 용마루 아래 세 줄로 각 방들이 배열되어 전체적인 구성은 여칸집과 동일하며 다만 사랑방과 안방 그리고 마루가 2칸으로 증가되었을 뿐이다. 이 형식은 주로 경북의 안동 영주 등 내륙산간지방의 태백산맥 기슭에서 찾아 볼 수 있다.¹²⁾ 이와 함께 여칸집의 변형인 두렁집을 기본으로 확대된 형식은 세겹집과 형식면에선 동일하나 마루가 앞쪽으로 돌출되어 붙으면서 사랑방과의 사이에서 가마정지란 독특한 공간이 새로 형성된 형식이다. 청운리에서 발견된 여칸집 확장 평면은 두렁집의 확대평면과 매우 유사하여 눈길을 끈다. 그러나 기 파악된 두 형식은



(기본형 확장-안동 와룡면 박분섭 가옥) (두렁집 확장-강원도 신리 강봉문 가옥)

그림 10. 여칸집을 기본으로 확대된 주거평면 사례
출전: 국립민속박물관 학술총서 26, 경북 내륙지역의 가옥과 생활, 240쪽, 1998 (좌) 국립민속박물관 학술총서 12, 강원도 산간지역의 가옥과 생활, 35쪽, 1994 (우)

8) 마을 촌노들에 의하면 “과거에는 부자들이 대부분 여칸집에 살아 열댓호가 있었으며 나머지는 일자집을 짓고 사는 것이 보통이었다” 한다.
9) 가운데 안뜰을 중심으로 한 공간의 배열이 井자 형상을 하였다 하여 주민들은 정자집 혹은 우물집이라 부른다.
10) 봉당은 출입을 위한 현관 기능과 함께 겨울철이나 일기가 좋지 않을 경우 가사 및 농작업이 이루어지는 마당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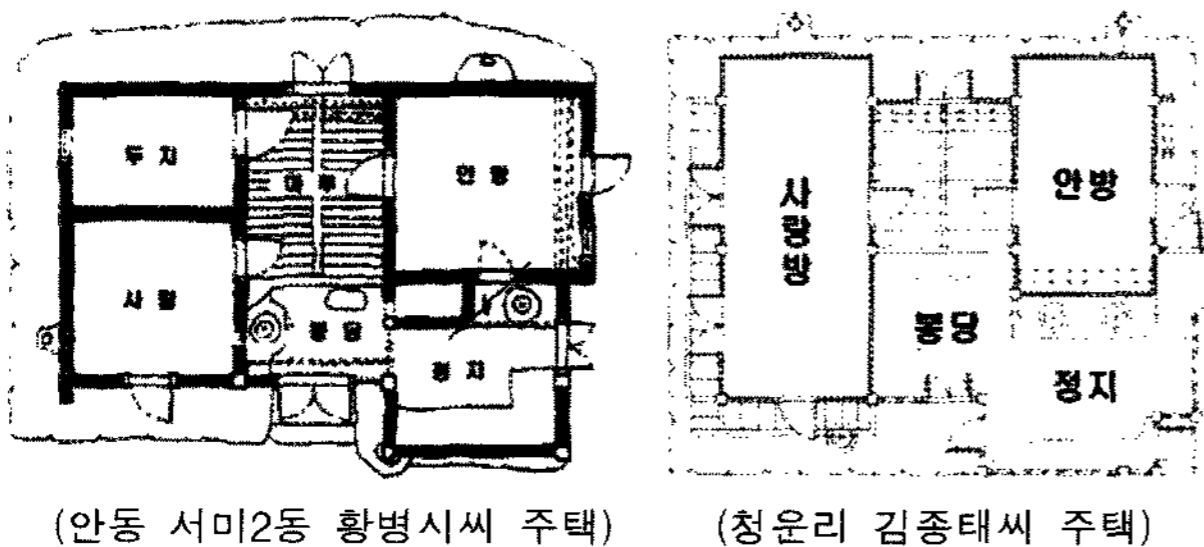
11) 최장순, 삼척산간지역 두렁집의 주거공간 구성과 확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권 7호, 2004.7에 의하면 두렁집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여칸집 평면의 앞쪽으로 마루가 돌출되어 ㄱ자형을 이루며 총 7칸으로 구성된 집을 말한다. 강원도 삼척 산간지역의 오십천을 따라 분포한다.
12) 홍승재, 경북지방의 겹집, 국립민속박물관 학술총서 26, 1998.

모두 한 지붕 아래에 공간들이 위치하여 있고 공간이 깊어지면서 집 내부가 어둡고 환기에도 불리한 점이 있는 반면 청운리의 경우는 가운데 외기와 직접 면하는 마당이 도입되어 전체적인 형태가 □자형이 되고 주거환경이 개선된 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할 수 있다.

청운리 주택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확장의 경향은 여칸집이 하나의 지붕아래 평면이 모두 수용되어 밀폐된 구조를 가지게 됨으로써 생기는 환기와 일조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운데 외기와 직접 면하는 안뜰을 도입하면서 초래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3. 측면부의 외향적 구조와 내외 질서의 확립

청운마을 여칸집 평면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측면부의 개방적 구조이다. 원래 여칸집은 도적이나 짐승의 침입을 막기 위해 외부에 대해서 폐쇄적인 외관으로 되어 있고 유사시 집안에서 모든 주생활의 행위가 수용될 수 있도록 지어진다.¹³⁾ 따라서 집 내부의 동선체계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나 봉당의 출입문만 닫으면 외부와 완벽하게 단절되는 내부지향적 구조를 보이는 것이 보편적이다.



(안동 서미2동 황병시씨 주택) (청운리 김종태씨 주택)

그림 11. 전형적인 여칸집과 청운리 여칸집

출전: 국립민속박물관 학술총서 26, 경북 내륙지역의 가옥과 생활, 240쪽, 1998 (좌)

안동 서미2동의 황병시씨 가옥은 이러한 전형적인 여칸집의 가옥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거의 유일한 출입문인 봉당문을 들어서면 내부 동선의 중심이 되는 봉당과 마루를 중심으로 모든 공간들이 원활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반면 외부로는 환기와 채광 등을 위한 최소한의 창호만을 두고 직접 출입은 억제되어 있는 구조이다.

그러나 청운 마을 여칸집 계열의 주택은 측면이 외향적 개방성을 띠며 열려있어 바깥마당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그림 11>. 김종태씨 집의 사랑방은 전면과 측면 때 칸에 여닫이 출입문이 달리고 쪽마루까지 설치되는 등 외부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 구조이고 여칸집의 변형인 고수성씨 주택 역시 사랑방이 바깥쪽으로 개방되어 마당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여칸집이 확대 변형된 형식의 고수성, 황학구씨 주택과 성천댁은 사랑방 옆으로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까지도 설치된 외부 지향적 구조를 보인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대청이나 안뜰이 있는 내부 쪽으로는 외여닫이문 하나만을 달아 외부에 비해 상대적 폐쇄적 구조를 하였다<그림 9>. 이러한 경향은 나머지 여칸집 계열 주택¹⁴⁾의 평면에서도 공통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반적인 여칸집의 특징 중의 하나가 폐쇄적인 외관과 내향적 구조임을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안방은 안뜰이나 대청과 매우 원활하게 연결되면서 원래의 여칸집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데 오히려 뒷마당(뒤안)으로의 연결성이 뛰어난 특징적인 면을 보여준다.

이는 안방을 중심으로 한 안뜰과 대청, 뒤안 등의 안공간과 사랑방의 바깥공간이 서로 독립성을 지니면서 공간적으로 분리된 내외질서의 체계가 이들의 평면구성에 내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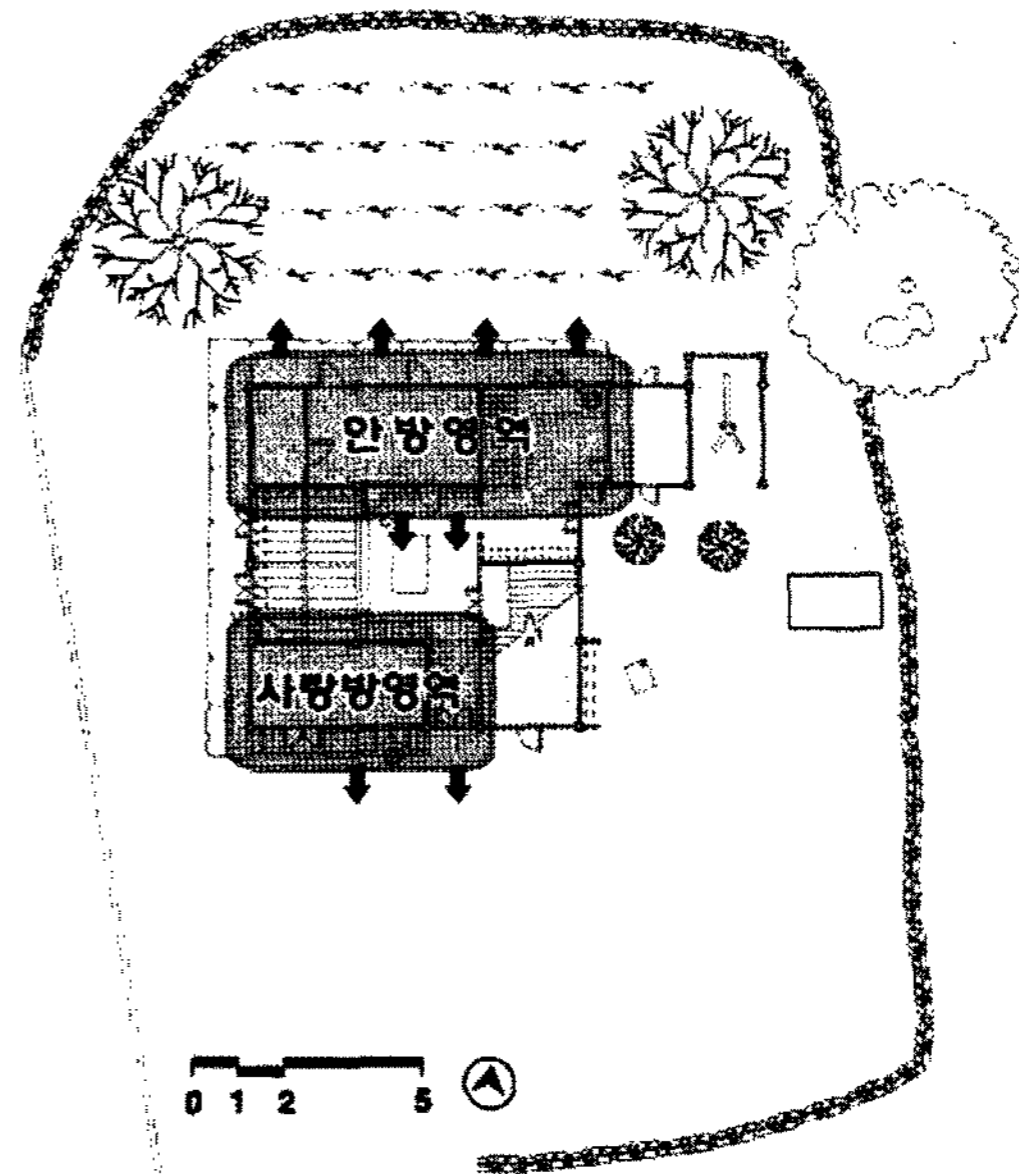


그림 12. 안방과 사랑방 영역의 지향성

여칸집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공간적 특성은 청운리만의 독특한 마을 구조체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마을의 주택은 대부분 동향을 지향하는 특성이 있으며 이에 비해 대지의 진입구는 남쪽이나 북쪽방향에 개설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택에 출입할 경우 측면방향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진입구 방향쪽의 사랑방 구조가 개방성을 띠게 되고 진입구의 반대 방향에 위치한 안방은 오히려 내밀한 구성을 하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주택 측면부의 개방적 구조와 내외질서는 一자형 주택에서도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윤순남씨 주택의 경우 본체의 평면 배열이 사랑방+솟방+안방+정지순으로 구

13) 김일진, 옛집에 담긴 생각, 도서출판 향토, 1996년, 21쪽

14) 황학구씨 주택은 후에 개조되면서 사랑방(현재 상방)에서 안뜰 쪽으로 문을 새로 설치한 경우이며 원래는 대청쪽 외여닫이문만 있었다.

성된 一자형 주택이다. 가장 바깥쪽 진입구 방향에 자리한 사랑방은 측면방향 때 칸에 출입문이 설치되고 쪽마루가 부설되는 등 대지의 진입방향 쪽으로 열린 구조이나 마루쪽으로는 출입이 제한되어 있다. 반면 안방과 셋방은 마루를 중심으로 원활한 연결성을 보여 이와 대조적인 구성을 보인다. 유일한 가족 공용공간인 마루와 사랑방이 연결되지 않고 안방과 직접 연결을 피한 내외질서에 따른 구성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4. 부속채 배치와 외부공간 구성의 특징

조사된 민가들 중 대다수의 주택이 본채와 함께 부속채가 배치되어 있다.¹⁵⁾ 부속채는 방이나 외양간, 농기구나 곡식을 저장 보관하는 광, 방앗간 등으로 구성되는데 주목적이 주거 용도인 경우와 보관 및 농작업이 주가 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一자집의 부속채에는 작업공간 외에 방이 포함되어 거주기능이 강조된 반면 여칸집 계열에서는 주로 외양간이나 방앗간만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 가족구성 변화나 자녀의 장성으로 인해 거주공간의 확대가 필요해질 때 부속채를 따로 지어 방을 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나 여칸집은 공간 확대의 기능적 요구를 본채 안에 수용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¹⁶⁾ 상대적으로 부속채의 거주기능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종태씨와 황서구씨 집은 처음 지어질 당시부터 외양간 자리에 방을 들인 경우이며 황학구씨 집은 후에 개조하면서 방을 들인 경우로 이런 경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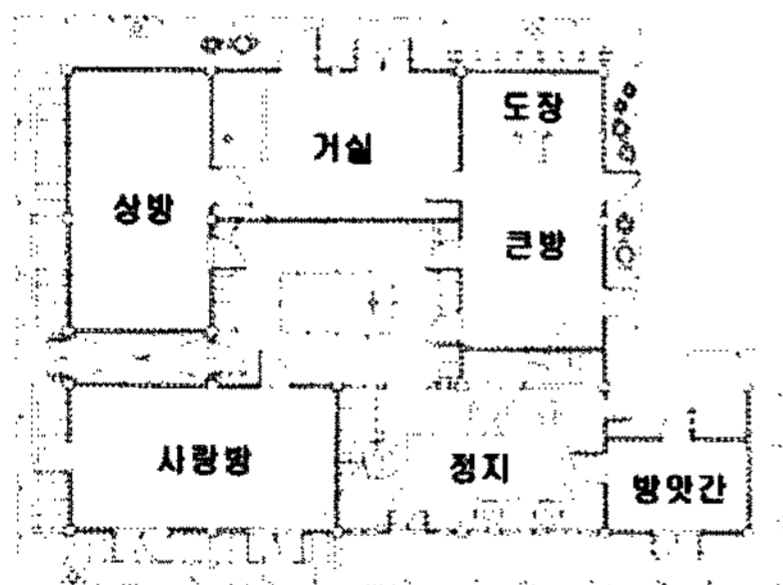


그림 13. 외양간이 방으로 개조된 사례(황학구씨 주택)

부속채의 배치를 본채와의 관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부속채가 본채의 정지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며¹⁷⁾ 그 앞에 一자나 ㄴ자로 놓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채가 동

향해 있으므로 부속채는 남향하여 자연히 진입구를 마주 대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본채와 함께 앞마당을 정연하게 위요하면서 특히 一자형 주택을 출입할 때 본채의 측면을 보게 됨으로써 생기는 마당의 시각적 공허함을 보완하는 효과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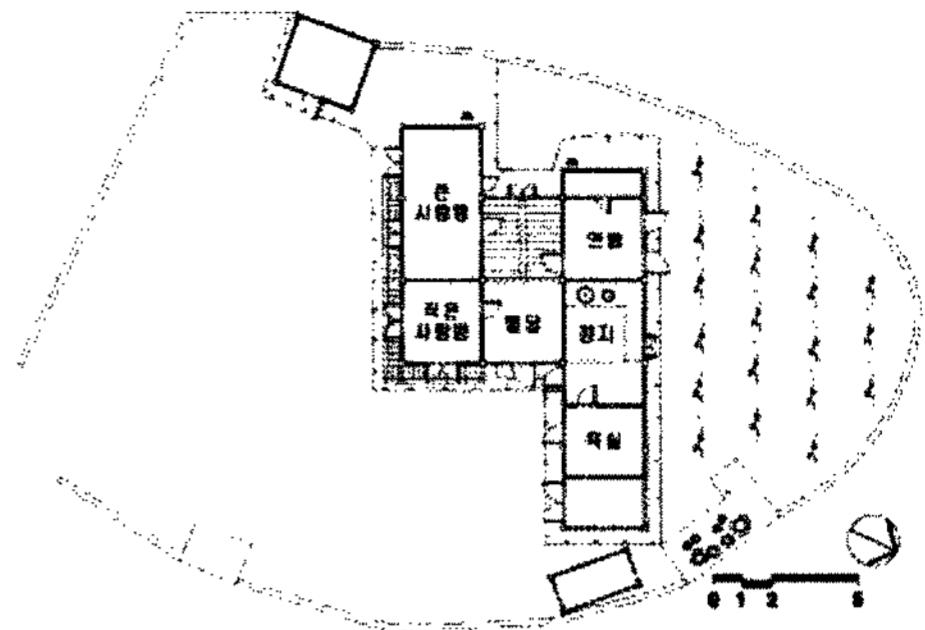


그림 14. 황서구씨 주택 배치도

특히 一자형 주택은 본채와 부속채를 적당한 간격으로 이격시키고 이 사이에 장독대나 수도간 등을 두어 가사 작업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여칸집에서는 부속채를 구조적으로 본채에 접합시키거나 매우 근접하게 배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지 안으로 출입하는 사람으로 부터 뒷마당이 완전하게 가려지게 되고 본채의 정지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게 되면서 뒷마당은 독립성이 확보된 더욱 내밀한 특성을 지니게 된다. 앞마당과 뒷마당을 완전하게 구분하려는 의도가 여칸집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내외질서가 내포된 본채 평면 배열의 구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5. 황서구씨 주택 본채와 부속채의 접합

15) 간략한 구조의 소규모 헛간과 신축된 시멘트 블록조의 창고 등이 배치된 사례가 있으나 이는 부속채의 부류로 보지 않았다.

16) 여칸집 내부에 배치된 외양간은 주거의 환경개선을 위해 본채에서 분리되는 추세를 보인다. 집의 구조를 크게 변경시키지 않고 쉽게 방으로 개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외양간 자리에 방이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 기 연구된 '정명섭, 광동엽(2003), 안동 서미 2동의 마을구조와 민가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에서도 여칸집의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17) 부속채가 본채의 정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배치되는 현상은 안동 서미 2동에서도 동일하다.

IV. 결 론

청송군에 위치한 청운리를 대상으로 마을의 공간적 구조와 민가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마을 내 82개소의 주택을 대상으로 좌향을 조사하고 15개소는 평면 구성과 배치의 특징을 함께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을 알 수 있었다.

청운리의 안산과 주산 역할을 하는 뒷산과 성황산, 마을 앞을 흐르는 용전천 그리고 중앙을 관통하는 31번 국도와 외곽 경계부를 지나는 지방도로가 마을의 구조적 질서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 중 두 산에 의해 형성된 동서방향의 산지축과 이에 직교된 남북방향의 우수축(용전천의 흐름)은 마을의 좌향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대부분의 주택이 동향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용전천이 직접 바라보이는 마을 경계부에 위치한 일부 주택들만 남향하는 지리적 분포의 특성도 함께 보인다.

주택의 유형은 일자형 주택, 여칸집 그리고 여칸집을 기본 구조로 확대·변형된 주택형식으로 분류되며 특히 여칸집을 기본으로 확대된 주거유형은 경북내륙 혹은 강원도 산간지역에서 보이는 세겹집 평면이나 두령집의 확대 평면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이들이 하나의 지붕 아래 모든 공간이 배열된 반면 집의 가운데 외기에 면하는 마당이 도입되면서 전체적인 형태가 □자형을 이룬다는 점이 다르다. 이러한 변형은 환기와 일조 등이 불합리한 여칸집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집 내부에 안뜰을 도입하면서 나타난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국도와 지방도 두 도로가 마을의 대부분의 영역을 사이에 두고 나란하게 남북방향으로 개설됨으로 인해 마을 내부의 길은 이와 직교되면서 격자형 구조를 이루어 측면에 진입구를 가진 주택들이 다수 나타나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측면진입의 추세는 주택형식에도 영향을 미쳐 주택의 외측면이 진입구 방향으로 매우 긴밀하게 열리는 경향이 많았다. 특히 사랑방의 외측면이 바깥과 직접 연결되면서 외향성을 띠게 되고 이에 반해 안방공간은 상대적으로 내밀해지고 오히려 뒷마당과 원활하게 연결되면서 내외질서가 내포된 평면구성을 한 특징적인 면도 발견된다. 전형적인 여칸집의 구조의 특징이 폐쇄적인 외관과 내부지향적 동선체계임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청운리 여칸집의 특징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또한 일자형 주택 역시 진입구 방향에 위치한 사랑방이 외부와 원활한 연결성을 보이는 반면 안방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 내외적 특성을 보인다.

한편 일자집의 부속채는 거주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공간 확대의 기능적 요구를 본체가 충분히 수용해 낼 수 있는 여칸집은 부속채가 거주의 기능을 담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은 진입구와 마주 대하는 방향으로 본체와 구조적으로 접합되어 배치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본체의 내외질서에 맞추어 앞마당과 뒷마당을 확연하게 구분하려는 의도에서 나타난 결과로 추측된다.

이상을 통해 주변 자연환경의 지리적 조건에 따라 마을의 내재적 질서체계가 갖추어지고 이는 곧 민가의 형식 결정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청송군지(1990), 청송군지, 신흥인쇄소.
2. 국립민속박물관(1994), 강원도 산간지역의 가옥과 생활, 국립민속박물관 학술총서 12.
3. 김일진(1996), 옛집에 담긴 생각, 도서출판 향토.
4. 국립민속박물관(1998), 경북 내륙지역의 가옥과 생활, 국립민속박물관 학술총서 26.
5. 강영환(1999),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6. 정명섭·곽동엽(2003), 안동 서미2동의 마을구조 및 민가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4(1).
7. 정명섭·곽동엽(2004), 문경 현리 농가의 배치 및 평면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5(1).
8. 정연상·이상해(2004), 경기도 전통민가의 퇴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6).
9.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2004), 줄당기기와 길쌈이 유명한 청운마을, 한국학술정보.
10. 최장순(2004), 삼척산간지역 두령집의 주거공간 구성과 확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7).
11. 양승정·박용환(2005), 길의 구조로 본 한국전통마을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1(7).
12. 문화재청(2005), 2005년도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일제조사사업.
13. 최장순(2005), 왕곡마을의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1(7).
14. 임종현·이상해(2008), 거주자 관점에서 본 경기도 민가의 주생활 및 평면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4(1).

(接受: 2008. 2. 22)